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11.15.(일) 12:00
(지 면) 2026.11.16.(월) 조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에 재난특교세 70억 원 조기 지원

- 16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지원, 지난해보다 15일 앞당기고 20억 원 늘려
- 대책지원본부 가동, 발생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으로 방역 대응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지원본부'(본부장: 사회재난실장)를 가동하고, 16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0억 원을 조기 지원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이번 '26/'27년 동절기 고병원성 AI는 10월 20일 전남광주 순천시 순천만 야생조류에서 먼저 검출됐다. 가금농장에서는 11월 3일 경기 연천군 산란계(9만 1천여 마리) 농장에서 처음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4건*이 발생했다.(11.13. 13시 기준)

* ① 경기 연천(H5N9)[11.3.], ② 전남광주 장흥(H5N9)[11.5.], ③ 경기 여주(H5N1)[11.6.], ④ 인천 강화(H5N9)[11.11.]

이에,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AI의 추가 확산에 대비해 지난 11월 9일(월) 16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70억 원을 조기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보다 15일 빠르고 2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지방정부의 방역 활동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교부된 예산은 소독약품 구입,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 지방정부의 현장 방역 활동에 쓰이게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4일(수)부터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역에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지방정부의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안전부서와 방역부서가 협력해 이동통제·소독 등 방역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방역상황과 현장 조치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가금농장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 산란계 농장 긴급점검(10.23.~10.30.), 정기점검·수시점검 병행(11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농가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방정부에서는 철저한 방역과 신속한 대응에 힘써 달라”면서 “행정안전부도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정부 등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행안부)	행안부 사회재난실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이종윤 (044-205-6190)
		담당자	서기관	권혁배 (044-205-6192)
담당 부서 (농식품부)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책임자	과 장	황성철 (044-201-2551)
		담당자	사무관	이주원 (044-201-255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